

키아프·프리즈 서울, 공존의 빛과 그림자



홍 경 안 의
시시일각

세계적인 아트페어인 '아트바젤홍콩(Art Basel Hong Kong)'은 오랫동안 아시아 미술시장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다. 문화예술 향유부터 관광, 작품 구매까지 다양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아트 블랙홀'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치적 불안정과 경기 침체의 여파로 예전의 영향력만큼은 아니라는 평가가 많다.

홍콩이 주춤하는 사이 아시아 미술시장의 새로운 거점으로 급부상한 곳은 서울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사회·경제적 기반을 바탕으로 세계 유수의 갤러리와 컬렉터들이 주목하는 대안 도시로 자리매김했으며, 한국국제아트페어(Kiaf SEOUL, 이하 키아프)와 프리즈 서울(FRIEZE SEOUL, 이하 프리즈)의 공동 개최 또한 국제적 미술 교류의 핵심 플랫폼으로 성장하는 데 적지 않게 기여했다.

2022년부터 시작된 키아프와 프리즈의 동행은 올해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지난 9월 3일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나흘간 진행된

프리즈에는 약 7만 명이 관람객이 방문했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프리즈보다 하루 더 열린 키아프는 작년 대비 소폭 증가한 8만여 명을 끌어 모았다.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매출 또한 양호한 성적을 거뒀을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숫자들이 감추고 있는 현실은 훨씬 복잡하다. 몇 점의 고가 작품 판매를 제외하면 전체적인 평균 판매가격은 예년 대비 현저히 낮아졌고, 시장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었다.

키아프가 프리즈의 2부 행사처럼 인식되고 있다는 문제도 남겼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이미 프리즈가 서울에 입성할 당시부터 예견되어 있었다. 사실 5년 간 프리즈와의 동행을 결정한 2022년 당시만 해도 키아프 측은 아시아 최고 미술시장으로 거듭나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다.

그러나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치러진 네 번의 공동 개최 결과, 키아프가 프리즈의 들러리에 그칠 수 있다는 초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 유력 화랑들마저 키아프를 떠나 프리즈로 이동했고, 관람객들 역시 프리즈를 우선 관람한 후 키아프를 둘러보는 패턴을 보였다. 결국 안방까지 내어준 상황에서 주도권마저 프리즈에 넘어간 형국인

셈이다.

키아프와 프리즈와의 동행은 이제 한 번 남았다. 프리즈는 2026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서울 전시를 희망하는 모양이다. 이유는 단순하다. 돈이 되기 때문이다. 아트페어는 철저히 자본논리에 움직이는 곳이고, 고급 콘텐츠인 미술품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게 목적이다.

프리즈가 그걸 모를 리 없다. '서울의 높은 문화수준' 운운하지만 실은 돈을 벌 수 있는 새로운 지역으로 바라보고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키아프는 수익 극대화를 위한 발판일 뿐이며, 이러한 관계가 지속된다면 한국은 문화의 주체가 아닌 글로벌 프랜차이즈 패어가 주도하는 소비시장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적 뒷받침과 명확한 비전 및 큐레이션, 엄격한 심사를 통한 예술성 중심의 작품과 갤러리 선별, 재원 마련을 위한 남다른 노력 등이 필요하다. 일각에선 키아프와 프리즈를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지만 유한적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키아프만의 고유한 정체성 확립을 통한 브랜드 파워 구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프리즈와의 격차는 해소될 수 없다.

/홍경한 미술평론가

더 많은 칼보다, 더 나은 칼이 필요하다



기 지 수 첩
허 정 윤
(자본시장부)

주방에 칼이 많다고 요리가 더 맛있어진 건 아니다. 잘 들지 않는 칼이 아무리 많아도 음식은 거칠고, 손질은 지저분하며, 요리는 아까와 손목에 통증만 남긴다. 요리에 중요한 건 칼의 '수'가 아니라 칼을 쥔 손의 숙련도'와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는 원칙이다.

금융감독 체계도 마찬가지다. 조직도를 화려하게 갈라놓는다고 해서 감독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금감원을 둘로 쪼개고, 금감위라는 새 조직을 세우고, 소비자 보호를 내세운 금융소비자보호원까지 만든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조각난 체계 속에서 최종적으로 길을 잃게 되는 건 감독당국이

아니라 소비자가 될 공산이 크다. 사고는 한 몸으로 터지는데, 책임은 흩어지게 된다.

2021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독립성 논란이 격화됐던 시기다. 당시에도 지적된 건 '정치로부터의 거리'였다. IMF가 금감원을 특수법인으로 설계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2025년, 상황은 훨씬 복잡해졌다. ESG 회계, 디지털 자산, PF 사업성 평가, 이해상충 점검처럼, 단일 부서나 단일 조직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이슈들이 연일 쏟아진다. 이제는 감독국 간의 수평적 공조와 기능간의 입체적 연결이 필수다. 조직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역할을 어떻게 조율하고 연결할지가 중요한 때다.

하지만 지금의 개편안은 그 흐름과 정반대 방향을 가리킨다. 제도 설계의 출발점은 '기능의 효율적 배분'이어야 하지만, 실제 논의는 '누가 어떤 자리에 앉을 것인가'로

흘러가고 있다.

전직 원장의 '미운털'이나, 특정 인사를 위한 자리 만들기 같은 확인되지 않은 정치적 해석들이 마치 개편의 동력처럼 작용한다. 향간에는 '금소위 자리에 친정권 측근을 앉히기 위한 큰 그림'이라는 말까지 돌고 있다. 그사이 실무자들은 감독 개혁이 아닌, 불필요한 루머 관리에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

심지어 소통하는 리더가 되겠다던 이찬진 금감원장은 개편안 발표 다음 날 열린 긴급 설명회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정부는 조직을 잘게 나누며 감독 개편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외치지만 자리를 나누는 개편에 최소한의 명분은 있을지 몰라도, 그 설계에는 방향이 없다. 조직 내 소통을 강조하며 "조직을 가물치처럼 팔팔 뛰게 만들겠다"던 이원장은 참묵 중이다. 지금 필요한 건 조직을 나누는 '많은 칼'이 아니라, 그 칼로 무엇을 지킬지 말할 사람이다. /zelkova@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9월 10일 (음 7월 19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다이나믹한 인생. 48년생 혼자서 가고 혼자서 멈춘다. 60년생 누군가에게는 호운이요 누군가에게는 과유불급이 되는 세상사. 72년생 강박관념은 항상 진행형. 84년생 홀로 자족하며 지내고 있어도 땅속에 보물이 있으니 행복.



37년생 음지보다 양지를 선택하게 된다. 49년생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걸. 61년생 흔들리지 않고 파는 꽃은 없다. 73년생 보이는 것도 있고 고상하게 향기를 내는 사람도 있다. 85년생 어두운 얼굴은 복을 깎아 먹는다.



38년생 잘 살펴서 피할 것은 피해 볼 일이다. 50년생 마음이 편안하니 세상이 아름답다. 62년생 주변의 능력 있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 74년생 바다 건너에서 소식과 함께 그리운 사람이 찾아온다. 86년생 경계를 넘는 것을 두려워 마라.



39년생 십년 묵은 체증이 해소. 51년생 동상 걸린 발을 얼음물에 담그는 심정. 63년생 사람의 얼굴을 보고 성격이나 기질을 파악하는 것을 관상이라 한다. 75년생 힘내라는 말 대신 실질적인 힘을 실어줘라. 87년생 초가삼간 태우는 격.



40년생 영업장에서 인사 없이 주문부터 받지 말자. 52년생 겸손하면 주변이 알고 도와준다. 64년생 일할 때가 안심된다. 76년생 사별이라는 브랜드를 많이 알 것이다 사야 될지 말자는 선택. 88년생 인생에 휘말리면 본전 찾기 힘들다.



41년생 부동산 매매를 하려고 좋은 말로 속삭이는 사람을 경계. 53년생 자존감이 지나치면 주변을 힘들게 하니 겸손하게. 65년생 평소 실력으로 어깨를 으쓱할 일이 생긴다. 77년생 집안 분위기를 바꿔보자. 89년생 친구 모임이 있는 날.



42년생 가족여행을 포기하더라도 원행은 말린다. 54년생 어디에 행운이 있는지 모르니 준비. 66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날. 78년생 업무능력과 업무시간이 비례하는 것은 아니니 시간 끝지 말라. 90년생 먼저 칭찬해주면 마음을 얻는다.



43년생 어디서 부는 바람이 근심을 걷어 간다. 55년생 가는 사람 잡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마라. 67년생 싸워서 이길 상대가 아니니 비켜서는 것이 현명. 79년생 제3자와의 긴 비밀은 없다. 91년생 종종 긴 숨을 쉬고 생각을 가다듬자.



44년생 조연도 사람을 바라며 들어야 한다. 56년생 위장계통이 안 좋을 수 있으니 먹는 것 주의. 68년생 습관이 주는 편안함을 극복해야 한다. 80년생 고용안정이 보장되는 직업으로 전환점이다. 92년생 어진 친구를 만나 지혜를 얻는다.



45년생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확실한 것이 없다. 57년생 버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니 겸손. 69년생 불운의 요소를 안다면 바뀌가면서 복덕을 증진시켜보라. 81년생 지금 행복이 가장 소중하다. 93년생 지나치게 강경하면 부러지기 쉽다.



46년생 지는 앞을 보면 내 신세를 보는 듯. 58년생 문서 운이 길하니 매매도 원만. 70년생 노력에 의해 불행한 부분은 과감히 개선된다. 82년생 사람이 채우려는 재물은 끝도 없다는 말이 틀리지 않는다. 94년생 귀인이 나타나니 운이 활짝.



47년생 원하던 일이 손에 주어진다. 59년생 새로운 이상이 다가온다. 71년생 우울증이 생기면 재발이 되니 극복하려는 본인 노력도 동반되어야. 83년생 계약하여 재물이 이익 발생한다. 95년생 신용을 중하게 여기고 작은 약속도 잊지 말도록.



김상회의四季

진언의 영험

광명진언의 영험을 말씀드렸는데 불교의 신앙 체계에 있어 신앙가피의 중요한 요소이다. 한국의 대승불교에 있어 대표적 예불 문인 천수경에도 신묘장구대다라니의 긴 진언과 이런저런 짧은 진언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다라니 또는 진언을 염송하는 공덕과 효험의 예는 넘친다. 광명진언은 2~7번 외우면 죄업이 소멸함은 물론이요, 흙이나 모래에 108번 외운 후 묘지에 뿌리면 죽은 이의 업장을 정화해 극락세계로 인도한다. 특히나 이 광명진언은 살아있는 이와 죽은 이 모두에게 신성한 주문으로서 이미 중국 당나라 시대 때부터 경전에 수록되어 우리나라와 일본 등지로 전파되었고 특히나 원효대사가 "유심안락도"에서 공덕을 강조했으며 그 이후 조상 천도기도에 빠지지 않는 중요한 진언이다.

근대의 훌륭한 큰 스님인 일타스님도 조상 천도재때 반드시 염송할 것을 강조함은 물론 불자들이라면 성묘 또는 묘사를 지내러 갈 때 광명진언을 108번 외운 모래를 준비하여 조상님들의 묘 위에 뿌려주자고 한 것이다. 빛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무리 오랜 기간을 어둠에 휩싸여 있던 동굴일지라도 불을 밝히면 한순간에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밝음이 깃드는 것처럼, 깊은 죄업(罪業)으로 어둠이 마음을 덮고 있을지라도 부처님의 광명이 비치면 저절로 밝아지며 깨어나게 된다는 것이 이 진언의 영험 원인인 것이다. 광명진언은 천도재는 물론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뭔가 일이 안 풀리고 답답할 때, 혼인이나 이사, 개업 등 일상에서 복락을 기원할 때, 정신적 안정을 위한 염불 수행으로도 권장한다. 그뿐만 아니라 불보살님들마다 그 기운이 함축된 진언은, 결국 악귀와 재앙을 물리치고 가정의 평화와 건강, 소원 성취로 불국토에서 해탈의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751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855호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하루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칸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결합형스도쿠

153문제

스도쿠 3650

컬러스도쿠110

주사스도쿠 120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마음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1	2	3	4	5	6	7	8	9
9	8	7	6	5	4	3	2	1
8	7	6	5	4	3	2	1	9
7	6	5	4	3	2	1	9	8
6	5	4	3	2	1	9	8	7
5	4	3	2	1	9	8	7	6
4	3	2	1	9	8	7	6	5
3	2	1	9	8	7	6	5	4
2	1	9	8	7	6	5	4	3